

기획 / 발달장애, 그 보통의 삶 (7) 에필로그

“발달장애가 삶의 ‘장애’ 되지 않는 제주 위해”

“요즘에는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연애하고, 그렇게 사는 ‘보통의 삶’을 말합니다.” (강경균 제주시장에 인건서비스지원센터장)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차근 차근 준비하면 자립할 수 있을 겁니다.” (자폐성 장애인 김대권 씨)

“(발달장애인·뇌병변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진행하지만 3년이 되면서 장애인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변화가 보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면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을 겁니다.” (임주혜 제주시장에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팀장)

한라일보 기획 ‘발달장애, 그 보통의 삶’의 시작에는 이러한 말들이 놓여 있다. 장애가 있어도 남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보통의 삶’을 향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여전히 아득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가 겪는 돌봄 부담부터 학교 교육, 취업, 자립 등의 문제를 살폈다. 이들이 겪어온 일상 속 어려움을 몇 가지 꺼내놓는 데 그친 한계가 있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 곳을 향했다. 다른 장애 유형보다 개인의 특성과 장애 정도의 차이가 큰 ‘발달장애인’에 맞는 지원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주만 놓고 봐도 이 같은 움직임은 부족하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도내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사진은 서귀포시 지역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의 집단심층면접.

도, 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도 기본계획·실태조사 전무… 욕구 반영 정책 한계 올해 5개년 지원계획 착수… 정책 추진 의지 중요하다.

다. ▶2014년 조례 제정에도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전무=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지난 2014년에 제정됐다. 이후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돼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행되고 있지만 허울 뿐이었다. 조례에는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여전히 관련 기본계획이 전무한 상태다.

도내 발달장애인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조사도 미흡하다. 현재까지 이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조사·연구한 것은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도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시행한 게 거의 유일하다. 제주도 조례에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조사는 없었다.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정책 수

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 실태조사 착수… 올해 연말까지 계획 수립=뒤늦게나마 제주자치도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올해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뢰해 도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포커스그룹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진 목표와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이상, 생애 전반까지 크게 다섯 가지 생애주기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가 올 연말까지 확정하는 기본계획은 모두 5개년 계획으로, 이에 따른 연차별 계획도 세워지게 된다. 연구책임자인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조사해 보니 영유아기는 조기 진단 체계와 치료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성인이 이후에는 시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며 “이처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욕구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과 행정시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 워크숍 등을 통해 자세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생애주기 맞춤 지원 위한 사업 추진 등 제주도 의지 관건=제주도 차원의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은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오 전문연구위원은 “제주시는 장애인(발달장애·뇌병변), 서귀포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이러한 시범사업과 달리 조례 등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제주 전체를 포괄할 수 있고 단기적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지역에서 돌봄 체계를 갖추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제주도의 추진 의지가 관건이다.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산 확보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모든 초중고에 제주어교육 예산 지원 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연계 운영비 편성 예정

제주도교육청이 내년에 제주어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별도 배정하는 등 학교 맞춤형 제주어교육(제주정체성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원된 학교 맞춤형 제주어교육 운영비는 초·중·고·특수학교 학급 규모에 따라 학교별 최소 3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아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되 제주의 자연과 환경, 신화와 전설, 말과 글, 역사, 생활문화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예산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 제주어교육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 편성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특히 제주어교육과

연계한 제주어교육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어교육 예산은 학교 규모에 따라 150만원~450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어교육의 하나로 ‘지역 역사 동아리 운영 지원’도 늘린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희망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동아리당 100만원을 지원해 제주 항일운동, 신촌민단(이재수의 난), 제주4·3 등 학교가 소재한 마을의 역사를 탐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돕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 역사 동아리 운영 희망학교가 총 21개교로 늘어나면서 사업도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태풍 잦은 제주, 배수 개선 전국 최하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예산집행률도 32.1%

제주지역이 태풍 길목에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됨에도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과 재해예방사업 집행은 타 지역에 비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제주 지역 농경지 배수개선율은 56%로 태풍과 해일 피해가 빈번한 부산(50%)과 함께 전국 최하위의 개선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인천(100%), 울산(100%), 광주(96.3%), 강원(86.4%) 지역의 경우 높은 개선율을 기록했다.

중공 지구수 비율에서도 제주는 91개소 중 34개소(37.4%)에 그쳐 전남(38.2%)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해 방제시설을 설치하고 제방사항을 정비해 홍수 재해로부터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할 목

적으로 1975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는 국가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총 11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며, 최근 10년간 연 2000~3000억원의 사업비가 꾸준히 소요되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022년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을 보면, 제주 지역의 경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평균 집행률에 못미쳤다.

제주 지역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집행률은 65.9%로 전국 평균 72.5%에 못미쳤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도 제주 지역 집행률은 32.1%로 전국 평균 60.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조기경보시스템 사업 집행률 역시 45.3%에 머물러 전국 평균 64.5% 보다 낮았다.

국회=부미환기자bu8385@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축 단
CONGRATULATIONS
하나원큐 프로 농구단

고서연
(조부: 고석도 · 조모: 허순희)
(부: 고정만 · 모: 현민희)

하나원큐 프로 농구단 입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명건설(주)
대표이사 고태관

취 임
CONGRATULATIONS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

제10대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제29회 경영학과
회장 한성국 외 회원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6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르’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